

[月刊資源] Insight

Vol. 22-03

2022. 03.

- 01 월간 가격동향
- 02 시장 주요이슈 · 월간개요
- 03 I. 유연탄
- 06 II. 우라늄
- 10 III. 동
- 14 IV. 아연
- 18 V. 니켈
- 21 VI. 철광석
- 23 부록 1. 광종별 가격동향
- 26 부록 2. 기관별 광물가격 전망

※ 본 자료는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월간 가격동향

(금액단위 : \$/톤, *우라늄 \$/lb)

광종	품목	규격	연평균		월평균('22년)		전월대비 (%)
			'20년	'21년	1월	2월	
유연탄 (연료탄)	FOB Richards Bay	5,500 NAR	48.3	95.5	139.4	173.6	24.6▲
	FOB Newcastle	5,500 GAR	45.9	84.8	128.2	152.4	18.9▲
	FOB Kalimantan	5,900 GAR	53.3	113.0	127.5	138.1	8.3▲
	CFR 동북아	5,750 NAR	61.0	114.2	158.9	186.6	17.4▲
우라늄		U ₃ O ₈	29.5	35.6	45.7	44.1	3.4▼
동		LME 현물	6,180.6	9,317.5	9,775.9	9,941.4	1.7▲
아연		LME 현물	2,267.0	3,007.4	3,610.0	3,644.2	1.0▲
니켈		LME 현물	13,789.3	18,487.8	22,326.0	24,178.0	8.3▲
철광석	CFR Main China	분광 63.5%	108.0	160.3	131.3	142.8	8.7▲

- 1) 자료원 : KOMIS
- 2) 위 가격은 실제 시장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 CFR동북아 추이 : '17.1~'22.2
- 4) 유연탄(FOB Newcastle) : 제20-1호부터 5,500 GAR 규격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함

시장 주요 이슈

- √ 광물종합지수(MinDex)¹⁾ 2월평균 3,221.69 (전월대비 8.4% 상승)
우라늄을 제외한 유연탄, 동, 니켈, 아연, 철광석 등 5개광종 모두 상승세
- √ 광종별 타이트한 수급 및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상승세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의 거래소 재고량 감소세 지속 등 타이트한 수급상황과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에 따라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함. 특히 3월들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유연탄과 니켈은 가격폭등세 시현

월 간 개 요

I. 유연탄

- 중국, 높은 해상 수입 가격으로 해상 수입탄 수요 감소
- 호주 정부, 동맹국 위해 석탄 수출 지원 추진

II. 우라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전분야 해외협력 악영향 전망
- 캐나다 Cameco사, McArthur River 광산과 Key Lake 공장 생산재개 계획 발표

III. 동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련동 공급망 차질 우려 심화
- Codelco사 등 메이저, `21년 동 생산부진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수익 발표 소식

IV. 아연

- 페루 Antamina 광산, 갱내채광 전환 추진
- 호주 McArthur River 광산 확장 프로젝트 승인 취소
- 프랑스 Auby 제련소 가행 중단

V. 니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니켈공급 위기 심화
- 중국 CNGR社, 황산니켈 연산 6만톤 규모 생산 개시

VI. 철광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급 우려와 중국의 수요회복 기대로 가격상승세
- 중국 철강연합(CISA), 2025년 해외 철광석 생산량 확대 계획

1) 공사가 자체개발한 광물특화형 종합가격지수로서 국내 산업수요도가 높은 15개 광종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준시점은 '16년 1월 = 1,000 임

I. 유연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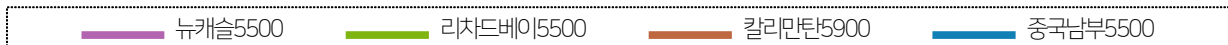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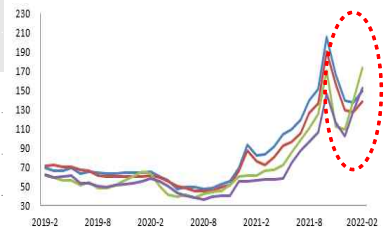
1. 가격 동향

■ '22.2월 평균가격 : 152.41 달러/톤(전월대비 18.9% 상승) ※ 연료탄 5,500kcal/kg, 호주 뉴캐슬 FOB기준

- 1월 인도네시아의 전력난에 따른 석탄 금수조치 단행에 이어서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석탄 등의 수출차질 우려가 심화되면서 연료탄 가격은 2월평균 152.41달러로 전월대비 18.9% 상승세를 나타냄. 또한 같은기간 Inter Continental Exchange기준 호주 뉴캐슬산 선물가격은 톤당 235.07달러로 전월대비 18.6% 상승세를 나타냄
 - 러시아는 `20년기준 석탄생산 세계 6위(5.2%)이며, 인도네시아, 호주에 이어 연료탄 수출 3위국(18%)임
- 다만 3월중순 세계 석탄가격의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는 에너지안보 목적으로 자국의 석탄 생산량 3억톤 이상 증산 및 석탄 6억2천만톤 비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상기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

(\$/톤, FOB 기준)

구분	'22.2	전월		전년동월		최저점(3년내)	
		'22.1	증감(%)	'21.2	증감(%)	3년내	최저기간
뉴캐슬	152.41	128.17	18.9	55.77	173.3	36.70	'20.08
리차드베이	173.64	139.37	24.6	61.06	184.4	38.61	'20.07
칼리만탄	138.07	127.46	8.3	76.55	80.4	45.35	'20.07
중국남부	148.99	137.47	8.4	82.23	81.2	47.19	'20.08



2. 시장 동향

■ 중국, 높은 해상 수입 가격으로 해상 수입탄 수요 감소

- '22년 2월 해상 수입탄은 인도네시아 수출의 느린 회복과 높은 해상 수입 가격으로 인해 '21년 월평균 21백만톤에서 크게 감소한 1,600만톤으로 추정됨
 - 중국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10일 이후 국내 석탄가격을 톤당 900위안 이하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였음. 이로 인해 중국 설 연휴 이후 추운 날씨와 석탄재고 감소로 톤당 1,115위안까지 상승한 가격이 2월말 톤당 1,000위안까지 하락하였음
 - 국내 석탄가격이 톤당 1,000위안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5,500kcal/kg 해상 제품에 대해 중국 남부 항구로 배송되는 비용이 톤당 1,000위안 이상으로 해상 수입탄에 대한 중국의 수요 감소

■ 호주, 강우량과 철도 유지 보수로 2월 수출량 9년 만에 최저치

- '22년 2월 호주 연료탄 수출량은 13.7백만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1월 수출량에서 19%(3.2백만톤) 감소한 수치임. 2월 수출량 감소는 2.8일~11일 호주 철도공사(ARTC)의 유지 보수로 인한 철도 폐쇄와 이달 후반의 계속되는 습한 날씨에 기인

■ 인도네시아, 습한 날씨와 수출 금지로 생산 및 수출 회복 지연

- '22년 2월 추정 생산량은 40백만톤으로 1월보다 개선되었지만 '19~'21 월평균 50백만톤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월 수출량은 1월보다 18백만톤 증가한 38백만톤으로 추정됨
- 인도네시아의 생산 및 수출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는 1월 말에 석탄 수출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선 가용성이 여전히 정상보다 낮아 석탄 운반에 문제가 있고, 라니냐 영향력이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철도 문제 지속

- '22년 1월 해상 연료탄 수출은 러시아 철도의 교통 체증과 겨울 날씨의 지연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함. 또한 2월 해상 연료탄 수출도 오미크론 관련 열차 승무원 부족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였고 1분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발트해와 흑해 항구로의 운송은 단기적 중단 가능성이 큼
 - 아조프해에서의 상선 이동은 2.21일부터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었으며 러시아 철도도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화물 운송을 중단
 - * 아조프해 항구를 통해 월평균 0.6백만톤을 선적하며 대부분 터키로 가는 연료탄임
 - * 러시아 철도를 통해 월평균 1.25백만톤의 러시아 수출이 이루어지며, 이 노선의 80%는 우크라이나로 나머지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및 인접국가로 수출됨
- 한편 러시아는 대중국 수출량을 '21년 57백만톤에서 5년 안에 100백만톤으로 두배 늘리는 것에 대해 중국과 논의 중임. 유럽으로의 운송에 대한 위험증가를 고려할 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동쪽으로 향하는 철도 인프라 한계와 서부 항구에서 아시아로의 긴 운송구간으로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 전환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 유럽, 러시아 제재로 남아공산 석탄 수입 확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연합(EU) 및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유럽의 남아공산 석탄 수요 급증
 - 유럽 발전소들이 남아공산, 미국산, 콜롬비아산 석탄 비축에 나선 가운데, 3.4일 유럽산 CIF ARA 연료탄 가격(6,000kcal/kg, NAR)이 전일 대비 104불 폭등한 390불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함

3. 업계 동향

■ 호주정부, 동맹국 위해 석탄 수출 지원 추진

- 호주정부는 동맹국들의 러시아산 석탄 대체 지원을 위해 호주 탄광업체와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3.3일 발표함. 그러나 호주 탄광업체들은 홍수 및 인력난 등에 따른 석탄 공급량 저하로 단기 유럽 시장의 석탄 부족량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전망

■ 중국 NDRC, 신규 탄광 허가로 석탄 발전 지속 시사

- 중국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21일 산시성 및 내몽고자치구의 신규 탄광 프로젝트 세 곳의 개발을 승인함.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 및 친환경에너지 촉진을 위한 장기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세계의 탈석탄 흐름을 역행함
 - * 중국은 전체 전력의 60%를 석탄 발전에 의존함

원료탄 시황

■ '22.2월 원료탄 평균 가격 (US\$/톤)

	'22.02	'22.01	'21.02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FOB Australia	444.13	407.39	143.86	9.0% ↑	208.7% ↑

(Premium Low Vol. HCC)



■ 강점결탄 스팟 가격은 '22.2월 한달 동안 2.8% 상승 : 444.75불(2/3) → 457불(2/28), 호주 FOB/톤

- 중국 베이징 올림픽과 설연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했으나, 2.20일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고로 감산 완화 및 재고 비축 수요 증가로 코크스 및 점결탄의 중국 소비 증가
- 러시아 철도가 교통 체증과 겨울 날씨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월 해상 원료탄 수출은 전월 대비 14%이상 감소하였으나 Elga광산의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함. 2월 해상 원료탄 수출은 오미크론 관련 열차 승무원 부족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 감소하고 나머지 1분기에도 부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가격 전망

- 러시아 석탄 회사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해상 시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바이어들이 지정학적 분쟁에 따른 고위험의 러시아산 유연탄 거래를 기피하고 대체원 모색에 따라 세계 석탄 가격 급등
- 중국 철강 감산 완화로 3월과 2분기 석탄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 전망
- 호주 메이저 광산의 생산량 증가, 오미크론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 등 공급은 개선되었으나 5월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강우량이 예측되어 균형 시장으로의 복귀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 * Wood Mackenzie사는 2월 보고서에서 '22.1분기 원료탄 가격을 395불로 전망하여 전월기준 전망가 398불에서 다소 하향조정함. '22.2분기 예측가는 408불로 전월기준 354불에서 상향했으며, 3~4분기 또한 각각 293불, 237불로 전월기준 전망가에서 상향조정함 (Queensland HCC)

■ 업계 동향

- Anglo American사, 호주 Grosvenor 광산의 재가동 및 German Creek Aquila 광산 생산 개시
 - '22년 Anglo American사의 원료탄 생산량 목표는 20백만톤~22백만톤이며 이 중 Grosvenor 광산 생산량은 4.4백만톤, Aquila 광산 생산량은 4.2백만톤으로 예상

II. 우라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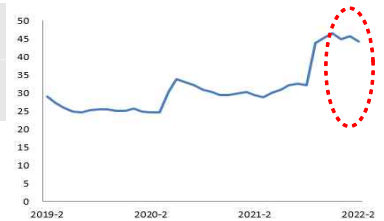
1. 가격 동향 (Nuexco 주간현물지수 기준)

■ '22.2월 평균가격 : 44.14 달러/파운드(전월대비 3.4% 하락)

- 우라늄 시장은 과다재고 및 공급과잉적 수급편더멘털로 인해 2월 평균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44.14달러로 전월대비 3.4% 하락함
- 그러나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스위프트 퇴출, 원유수입 금지 등 對러시아 경제제재가 단행되었고, 미국정부는 러시아 국영 우라늄 메이저인 Rosatom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급망 차질우려에 따른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함. 이에따라 3월2주차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55.82달러로 전주대비 10% 상승하면서 4주연속 상승세를 나타냄
 - `20년기준 우라늄 생산량은 러시아 7위(2,846톤, 6%), 우크라이나 9위(400톤, 0.8%)임
 - 러시아 Rosatom사는 세계 농축 우라늄 생산량의 35% 가량을 차지하며, 다수의 유럽 원전에 우라늄을 공급하고 있음

(단위 : \$/lb)

'22.2	전월		전년동월		최저점(3년내)	
	'22.1	증감(%)	'21.2	증감(%)	'19.6	증감(%)
44.14	45.69	△3.4	29.36	50.3	24.63	79.2



2. 시장 동향

■ 2월 우라늄시장 요약

- (정련 우라늄(U₃O₈)) 2월 들어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는 빠르게 진정된 반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여 원자력 연료 모든 주기의 공급망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제재를 단행하고 있음. 미국 및 EU는 러시아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을 결정하였으며,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전체 U\$6,000억 규모)를 동결시킴. 이에 따라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2월 28일자 U\$0.01로 폭락하였으며, 러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인상함
-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에너지 부문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각 회사별 공급망 이슈 및 재정 문제가 여전히 산적하고 있음. 스웨덴 전력회사 Vattenfall은 러시아산 우라늄과 핵연료 주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원자력 기업들도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우라늄 공급원을 찾기 시작함
- 2월 정련 우라늄 가격은 2월 23일까지 U\$43.25/lb 수준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 반영 및 투기자금 유입으로 2월 24일자 U\$44.75/lb 및 2월 25일자 U\$47.0/lb로 상승함. 2월 28일자

정련 우라늄 가격은 U\$49.0/lb로 1월말 대비 U\$5.85 상승하였으며, 정련 우라늄의 장기 예측가격은 U\$45.25/lb로 1월말 대비 변동없음

- (변환 우라늄(UF₆)) 수 개월간 변환 우라늄 시장은 적은 수요와 공급으로 얽은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러시아산 공급 불확실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격 상승 여지가 생김. 변환 우라늄의 2월 거래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도 시점 및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소폭 상승함. 미국 Honeywell사의 Metropolis 우라늄 변환시설(MTW) 폐쇄와 지난 수 년 간의 재고량 감소로 인해 변환 우라늄의 현물 및 단기 시장은 유동성 문제가 부상하고 있음. 더욱이 러시아산 우라늄의 공급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이미 타이트한 단기 시장에 추가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
- 2월 28일자 변환 우라늄 가격은 북미 인도물량 및 유럽 인도물량 모두 U\$17.0/kg으로 1월말 대비 U\$0.50 상승하였으며, 변환 우라늄의 장기 예측가격은 북미 인도물량 및 유럽 인도물량 모두 U\$20.0/kg으로 1월말 대비 U\$1.0 상승하였음
- (농축 우라늄(SWU)) 우크라-러시아 전쟁으로, 발전소들이 러시아외 다른 우라늄 공급망을 찾기 시작하면서 세계 우라늄 공급망 교란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발전소를 비롯한 기업들은 대러시아 사업을 전면 재검토 중임. 우크라이나 사태는 최근의 농축 우라늄에 대한 수요 증가를 부추겨서 가격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판매자들은 농축 우라늄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특히 장기계약 가격을 높여 부르고 있으며, 발전소들은 장기 SWU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2월 28일자 SWU 가격은 U\$59.0/SWU로 1월말 대비 변동없으며, SWU 장기 예측가격은 U\$65.0/SWU로 1월말 대비 변동없음

3. 업계 동향

■ EC, EU 분류체계에 조건부로 원자력 포함 확정

- 유럽연합집행위(EC)는 2월 2일자 EU 분류체계(Taxonomy)상 조건부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보완 기후위임법률(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을 승인함. EC는 특정 원자력 및 천연가스 관련 경제활동 기준이 EU 기후 및 환경 목표와 일치하며 화석연료에서 기후 중립적인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원자력의 EU 분류체계 포함 기준
 - 극저준위·저준위·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보유·운영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계획 수립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원자력해체기금 확보, 제3국으로의 처분을 목적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수출 금지(단, 제3국과 협의 시, 제3국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그램 운영 및 최종처분시설 가동 허용)
 - 2025년부터 기존·신규 원전에 국가규제기관의 인증·승인을 받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도입
 - 신규 원전 프로젝트 추진 위해 2045년 이전 건설승인 취득 및 최신 원자로(3세대+) 도입
 - 기존 원전을 계속운영하기 위한 설비개선·현대화는 2040년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 취득
- 보완 기후위임법률은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 전달되어 4개월간 검토될 예정이며 필요시 2개월의 추가 검토기간이 주어질 수 있음. EU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이 반대하거나, 유럽의회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음. 보완 기후위임법률은 공동입법자(유럽의회, EU이사회)의 반대가 없는 경우 2023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

■ 캐나다 Cameco사, McArthur River 광산과 Key Lake 공장 생산재개 계획 발표

-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 Cameco는 2월 9일자 분기별 실적발표(Earning call)에서 우라늄에 대한 시장 상황과 선물 장기계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우라늄 증산을 발표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라늄 수요 급감과 가격 하락으로, Cameco사는 2016년 이후 우라늄 총 1억 9천만 파운드를 감산함
 - Cameco는 2024년 이후 McArthur River 광산과 Key Lake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라늄 원광을 연 1,500만 파운드 수준으로 증산하는 반면, 우라늄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Cigar Lake 광산의 생산량을 연 1,350만 파운드 수준으로 줄일 예정
- 한편, 우라늄 가격은 지속 상승하여 현물 가격 기준 U\$43.08/lb를 호가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평균 가격인 U\$21.88/lb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임. S&P는 카자흐스탄 소요와 SPUT 등 관련기관의 매수주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우라늄에 대한 추가 수요가 시장에 내재된 상태라고 분석함

■ 프랑스 신규 원전 최소 6기 건설 계획 발표

-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2월 10일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시행 및 최대 14기의 EPR2 신규 원전 건설(6기 건설 및 추가 8기 증설 검토) 계획을 발표함
- Macron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해외 전력 수입 의존도 축소,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원전 계획을 언급한 바 있음. 이번 발표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부흥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이에 따라, 계속 운전을 통한 기존 원전의 50년 이상 운영 및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착수 및 8기의 추가 건설 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 Macron 대통령은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해 EDF에 원자력안전청(ASN)과 공동으로 계속운전 시행 조건 검토를 지시함. 이는 2020년에 폐쇄된 Fessenheim 원전 외에 12기 원전을 2035년까지 폐쇄하기로 한 당초 정부 계획을 뒤집는 결정임. 2050년까지 25GW 규모의 EPR2 6기가 건설될 예정이며, 첫 호기 착공은 2028년, 가동은 2035년으로 계획됨. 또한 2040년대 말까지 8기의 EPR2 증설 가능성도 검토될 예정임

■ 호주 Deep Yellow사, 나미비아 Tumas 프로젝트의 DFS 진행중

- 호주 우라늄 탐사기업 Deep Yellow사는 나미비아 Tumas의 최종타당성조사(DFS)가 일정대로 진행 중이며 2022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 DFS 결과, Tumas 프로젝트의 매장량은 68.4백만 lbU3O8(평균품위 @345ppm)으로 PFS 결과 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가행기간은 20년 이상, NPV는 U\$412백만으로 평가됨

■ 미국 EIA, 2021년 4분기 우라늄 생산량 증가 보고

-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이 2021년 4분기 국내 우라늄정광(U3O8) 생산량을 총 9,978lb로 보고함. 이는 3분기 대비 88% 증가 및 지난 5년간(2015-2019) 동기 평균 대비 98% 감소한 수치임
- 2021년 4분기 생산은 Energy Fuels사의 Nicholas Ranch 광산, Strara Energy사(호주 Peninsula Energy사의 미국 자회사)의 Ross Central 광산, Cameco사의 Crowe Butte 광산 등 3곳임
- 한편, 2021년 3분기 생산실적이 있는 Cameco사의 Smith Ranch-Highland 광산은 4분기 생산실적이 없음

■ 호주 Lotus Resources사, 말라위 Kayelekera 프로젝트 매장량 23% 증가 발표

- 호주 우라늄 탐사기업 Lotus Resources사가 말라위 Kayelekera 프로젝트의 최종타당성조사(DFS)를

진행하면서 매장량이 23%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이로써, Kayelekera 프로젝트의 매장량은 확정 및 추정급 37.4백만 lbU3O8(@530ppm) 등 총 46.3백만 lbU3O8(@500ppm)로 평가됨
- DFS는 2022년 중반 완료 계획임

■ 미국 Energy Fuels사, Pinyon Plain 광산 개발권의 법원 승인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Energy Fuels사의 Pinyon Plain 광산(舊Canyon 광산, Grand Canyon 인근 소재) 개발권을 인정함. 동 광산은 과거 3개 환경단체 및 Havasupai 원주민들의 반대로 폐쇄된 바 있음
- Pinyon Plain 광산은 현재 탐사 후 중단상태이며, 우라늄 가격 상승 시 후속 계획을 논의할 예정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전분야 해외협력 악영향,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정적 운영 위협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따라 러시아가 해외에 추진중인 신규원전 건설, 원전연료 공급, 운영중 유지보수 분야에서도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
 - 러시아 Rosatom이 개발한 VVER-1200 노형을 사용해 Hanhikivi 원전을 건설하려는 핀란드는 해당 원전의 건설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러시아의 VVER-440 노형을 적용한 Loviisa 1·2호기를 운영중인 핀란드의 TVO은 러시아와의 상업적 거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품 조달은 다양한 공급업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원전 가동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힘
 - 스웨덴 국영 전력회사 Vattenfall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로부터 원전용 핵연료를 조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Vattenfall은 러시아 TVEL, 프랑스 Framatome, 미국 Westinghouse, 미국-스페인 합작회사 GNF Enusa로부터 핵연료를 조달받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이 러시아군에 점령되고 러시아군 공격으로 자포리자 원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일부 원전의 안정적인 가동이 위협을 받음. IAEA와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원전 및 방사성물질의 보안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을 삼가줄 것을 촉구함

■ 대한민국, 원전 향후 60년 주력 전원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열림
- 문대통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작업이 60년 이상의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관련,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함

III. 동

1. 가격 동향 (LME 기준)

■ '22.2월 평균가격 : 9,941 달러/톤 (전월대비 1.7% 상승)

*LME 재고량 : '22. 1월말 8만7,650톤 → '22. 2월말 7만3,025톤

- 미국의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금속 등 주요 자원들의 공급쇼크가 발생하였고, 거래소 재고량도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기동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함. 또한 중국의 제조업 경기지수가 연초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칠레의 동 생산이 코로나 재확산 여파와 대형광산들의 품위저하 문제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압력이 심화됨
 - 중국의 2월 Caixin 제조업PMI는 50.4로 전월대비 1.3p 상승하면서 경기확장 국면으로 전환
 - 칠레의 1월 동 광산생산은 43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7%이상 감소세('11년이후 1월 생산 중 역대 최저치)
- 다만, 미연준의 3월 FOMC 회의는 매파적 정책강화 전망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위험자산 기피 심리 확산이 상기 가격상승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

(단위 : \$/톤)



2. 시장 동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급망 차질 우려 심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스위프트 퇴출 등 대러시아 경제제재 압박 및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법안 발의 등으로 원자재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동 시장도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상방압력이 발생함. 특히 러시아의 금융결제 및 해운/항공 운항차질로 인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니켈, 유연탄 등은 일일기준 40% 이상의 가격급등세가 나타남
- LME 동 가격은 3월7일기준 톤당 10,730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56거래일 연속 백워드이션(현물가격 우위)을 기록하면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됨. 러시아의 동 생산은 `21년 광산기준 세계 7위(4.1%), 정련기준 세계 4위(4.2%) 이며, 정련동 수출량은 세계 3위(5.8%)임²⁾. 다만,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동 수입금액은 `21년기준 12천달러로 매우 적은 수준임

■세계 동 수급 펀더멘탈, 소비부진 및 생산정상화에 따른 공급부족분 완화 (ICSG)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동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동 공급부족 현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2) 자료원 : World Metal Statistics 2022

나타남. 국제 동 연구회(ICSG)에 따르면, `21년1~11월 동 수급 편더멘털은 공급부족 33.9만톤으로 재작년 공급부족 48.7만톤 대비 부족분이 14.8만톤 감소함. 같은기간 세계 정련동 생산량은 2,269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는데 기본 또는 스크랩 활용 동 공급량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본(1차) 동 공급량은 1,897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는데 중국 4% 증가, 콩고민주공화국 8.5% 증가분이 세계생산을 견인함. `20년 코로나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정상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 벨기에, 미국 등도 생산회복세가 나타남. 같은기간 스크랩 활용(2차) 동 공급량은 372만톤으로 중국의 증산효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함

- 세계 정련동 소비량은 2,303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 증가함. 세계 동 소비는 `20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21년 동 소비량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중국 이외의 국가들의 정련동 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9% 증가했으나, 여전히 `19년 대비로는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동 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했으며, 정련동 순수입량이 29% 가량 감소함에 따라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최근 중국의 2월 Caixin 제조업 PMI는 50.4로 전월대비 1.3p 상승하여 확장국면으로 전환되는 등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면서 중국의 1~2월 동 제품 수입량은 969,289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했고, 같은기간 중국의 동광 수입량은 418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세를 나타냄

• `21년1~11월 세계 동 광산생산량은 1,924만톤으로 `20년 코로나 확산 이후 봉쇄조치 여파로 생산 차질을 겪었던 시기와 비교할 때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함. 같은기간 칠레의 동 광산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페루의 경우 `20년 국가적 차원의 봉쇄조치가 추진되면서 `21년은 기저효과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의 동 광산생산은 자국내 1위광산인 Grasberg광산의 갱내채굴 전환사업 효과로 전년동기대비 50% 가량 증산하였으며, 콩고민주공화국(DRC), 파나마도 Kamo-a-Kakula, Cobre Panama 등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의 정상생산 진입으로 동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함

■ 최근 남미 동 생산동향, 칠레 6.9% 감소, 페루 12.7% 증가

• 칠레 동 위원회 Cochilco에 따르면 칠레의 `22년1월 동 생산량은 425,700톤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대형광산들의 생산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6.9% 감소로 3년내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역대 최저기록인 `19년2월 415,200톤에 근접할 만큼 생산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칠레의 `21년 동 생산량은 562만톤으로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4년내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음

- 국영기업 Codelco사의 1월 동 생산량은 113,5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4.7% 감소함

- 세계 1위 광산인 Escondida의 1월 동 생산량은 81,0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하였고, 칠레내 3위 동 광산인 Collahuasi광산의 동 생산량은 51,3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세를 기록함. 또한 같은기간 Los Pelambres는 18,1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37.2% 감소, Anglo American Sur는 22,9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페루의 에너지광업부에 따르면 페루의 `22년1월 동 생산량은 199,255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함. `21년 페루의 동 생산량은 230만톤으로 전년대비 6.9% 증가세를 이어나감. 다만, 페루의 1월 아연생산량은 106,48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페루내 최대 동-아연 광산인 Antamina의 1월 동 생산량은 39,384톤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했으며, 페루 2위 동 광산인 Cerro Verde의 동 생산량은 38,178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세를 보임. 다만, 3위 Southern Peru Copper의 동 생산은 31,75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세를 나타냄

■ 미국의 2월 인플레이션 7.9% ↑ (19년내 최고치), 중국의 산업활동 회복세로 전환

- 미국의 2월 인플레이션율은 7.9%로 전월대비 0.4%p 인상되며 `82년1월이후 19년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함. 미연준의 연간 2%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12개월연속 상회했으며, 6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세가 지속됨.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측면에서 에너지 비용급등, 노동력부족 및 공급망 위기 등이 심화되면서 3월 물가상승도 가파를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2월 IHS Markit 제조업PMI는 57.3으로 전월대비 1.8p 상승함. 생산과 신규주문 지표의 강세가 제조업 지수를 상승세로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월대비 8.8% 상승으로 전월대비 0.3%p 하락, 작년 6월이후 최저치이며, 4개월연속 전월대비 하락세를 기록함. 중국 정부의 공급망 확보 및 원자재 가격안정화를 위한 시장개입 등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냄
- 중국의 2월 Caixin 제조업 PMI는 50.4로 전월대비 1.3p 상승, 시장전망치 대비 1.1p 상승함. 생산확대 및 신규주문이 작년 6월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지수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 중국의 1~2월 산업생산은 7.5%(YOY) 증가로 12월대비 3.2%p 상승, 시장전망치 3.9% 대비 3.6%p 상회
- 화학원료/제품(1.2%→4.9%), 자동차(2.8%→7.2%), 농업및식품가공산업(5.7%→6.5%), 일반장비류(1.5%→5.0%)

3. 업계 동향

■ 메이저사, `21년 동 생산부진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수익 발표 소식

- 칠레 국영기업 Codelco사는 작년 동 생산량이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동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기록적 수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당사의 `21년 세전이익은 74억달러로 전년대비 256% 증가했고, 같은기간 EBITDA는 103.8억달러로 전년대비 96.2% 증가세를 나타냄. Codelco사의 `21년 동 생산량은 162만톤으로 전년대비 0.2% 증가로 코로나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기간 당사의 직접 생산비용은 파운드당 132.7센트로 인플레이션과 환율효과, 투입원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2.5% 증가함
- 당사는 동 생산능력 확장을 위해 노후광산들의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Salvador광산의 가행연수를 47년 연장하기 위해 13.8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동 생산량은 연간 9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당사는 칠레 Andina광산의 갱내채굴 방식을 노천채굴로 전환하기 위해 14.5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행연수를 30년 연장하였음
- 칠레 Antofagasta사는 `21년 동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동 가격상승에 따라 수익은 오히려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당사의 `21년 EBITDA는 창사이래 사상최대인 48.4억달러로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74.7억달러로 전년대비 46% 확대됨
- 당사의 `21년 동과 몰리브덴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동은 721,500톤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으며, 몰리브덴은 10,500톤으로 전년대비 16.7% 감소함. 올해 또한 칠레 Centinela와 Los Pelambres광산의 품위저하 및 가뭄지속에 따른 운영차질로 당사의 동 생산전망치는 66만~69만톤으로 작년 71만~74만톤보다 크게 하향조정됨. `21년말 Los Pelambres 확장프로젝트의 완공도는 68% 이며, `23년초 가동개시할 예정임
- 호주 Rio Tinto사는 `21년 동 가격상승에 따라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함. 당사의 `21년 순수익은 211억달러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으며, 그중 동 부문은 광산생산이 49.4만톤, 정련동 생산이 20.2만톤으로 수익 39.7억달러를 발생시키면서 전년대비 90% 증가세를 나타냄

- 금년 당사의 알루미늄광 생산은 310만~320만톤으로 전년수준에 머물 전망이나, 동광 생산은 50만~57.5만톤, 정련동 생산은 23만~29만톤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당사의 동 생산비용은 몽골 Oyu Tolgoi광산의 금 부산물과 미국 Kennecott광산의 몰리브덴 부산물의 생산감소 전망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콩고민주공화국(DRC) Kamo-a-Kakula 확장프로젝트 4월 가동개시 발표

- 콩고민주공화국(DRC) Kamo-a-Kakula 동 광산은 연간 380만톤급 동광 플랜트 건설사업이 완공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달부터 2단계 선광 플랜트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짐. 상기 확장 프로젝트 완공으로 Kamo-a-Kakula 프로젝트의 처리 생산능력은 연간 760만톤으로 2배가량 확장될 전망이다. 또한 운영사인 캐나다 Ivanhoe Mines사와 중국 Zijin Mining사는 2월23일 동광 처리능력을 연산 920만톤까지 21% 확대시킬 계획을 발표함. 본 사업을 통해 2단계 선광 플랜트의 생산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산 45만톤 이상으로 확대시킬 전망이다
- 생산캐파가 연산 20만톤급인 1단계 선광 플랜트는 `21년5월25일 상업개시 했으며, 작년 6월 자국내 Lualaba Copper Smelter사와 10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연간 15만톤의 동 정광을 판매함. 금년 Kamo-a-Kakula의 동 생산가이드는 29만~34만톤으로 설정됨

■ 호주 South32사, 칠레 Sierra Gorda 동 광산지분 45% 인수 소식

- 호주 자원기업인 South32사는 일본의 Sumitomo Metal Mining사와 Sumitomo Corporation으로부터 칠레 Sierra Gorda 동 광산의 지분 45%를 인수하였다고 발표함. 상기 인수건은 14억달러규모의 계약이며, 금년부터 `25년까지 동 생산량과 가격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추가로 5억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상기 광산의 나머지 지분 55%는 폴란드의 동 제조사인 KGHM사가 보유하고 있음
 - 칠레 동 위원회 Cochilco에 따르면 Sierra Gorda광산은 `14년 가동을 개시했으며, 가행연수는 20년이상으로 `21년 동 생산량은 198,200톤임
- 본 거래로 South32사는 포트폴리오 중 금속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경제전환에 대응하면서 생산량과 수익측면에서 즉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6월에 끝나는 회계기간까지 동 27,000톤, 몰리브덴 400톤, 금 1만온스, 은 22.5만온스를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
- 다만, 상기 광산의 동 정광 품위는 50% 이상으로 통상의 제련소에 투입되는 동 품위가 24~28%임을 감안하면 판매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따라 본 프로젝트는 연산 50만톤급 제련소 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3단계 확장사업과 동시에 건설이 추진될 예정임. 상업생산 개시는 `24년4분기로 예상하고 있음

■ 칠레 환경위원회, 동, 리튬 광산의 국유화 이슈 제기³⁾

- 칠레 제헌의회 환경위원회는 주요 동 및 리튬광산의 국유화를 포함하고 있는 개헌안 초안을 3월5일 승인함. 당해 법안은 대형 동, 리튬 광산들의 보상없는 광업권 국유화, 빙산 및 원주민 지역의 조광권 취소, 1993년이전의 프로젝트들의 환경평가 제출 등을 골자로 하며, 전체 제헌의회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함. 관련 전문가들은 칠레의 광산 국유화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며, 신규 광업 로열티 인상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르면 광산업체들은 동 가격이 파운드당 4달러 초과시 최고 80%의 세율을 부담하며, 마진율도 50%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원 : Bloomberg, World Bureau of Metal Statistics, Wood Mackenzie, Trading Economics, SNL, S&P Global, 코리아PDS

3) 자료원 : 한국자원정보서비스(www.kores.net) 일일자원뉴스 3월1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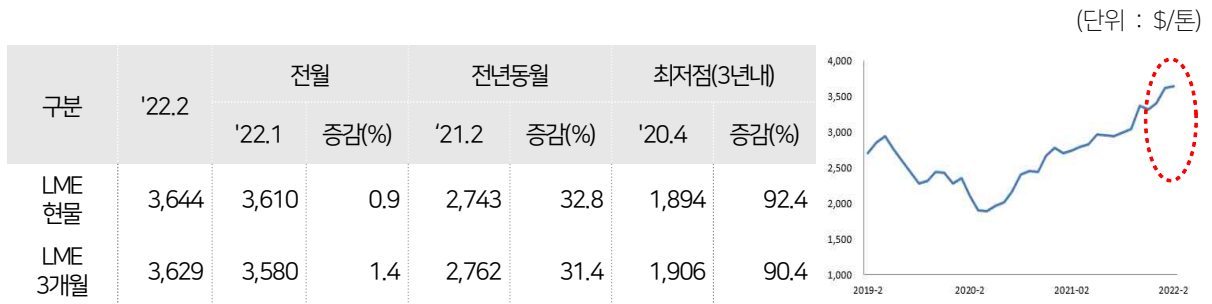
IV. 아연

1. 가격 동향 (LME기준)

■ '22.2월 평균가격 : 3,644 달러/톤(전월대비 0.9% 상승)

*LME 재고량 : '22. 1월말 15만5,075톤 → '22. 2월말 14만4,100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대러시아 스위프트 퇴출 등 경제제재가 추진되면서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의 공급망 차질우려가 심화되었으며, 중국의 제조업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아연시장의 가격 상승압력이 발생함. 런던금속거래소의 아연 재고량이 2월말기준 14.4만톤으로 전월말대비 7.1% 감소한 점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3월2주차 LME의 아연재고량은 141,100톤으로 전주대비 1.5% 감소, 12주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다만, 미국의 2월 인플레이션율이 19년내 최대치를 재차 경신하였고, 러시아발 원자재 공급충격으로 3월 물가상승도 심화될 전망이어서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점은 상기 상승압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분석



2. 시장 동향

■ 3월 아연 시장전망지표(Market Outlook Index : MOI)⁴⁾ : 10.08 (위험)

- 미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조기추진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대한 SWIFT 퇴출 등 서방의 경제제재 단행으로 니켈, 알루미늄 등 주요 자원의 공급차질 우려가 심화되면서 비철금속 상승압력이 발생함
- 3월 1주차 아연가격은 전주대비 6.7% 상승한 U\$3,876/t을 기록함. 3월 아연 시장전망지표는 10.08로 전월대비 9.5% 하락하였으며, 등급은 “위험” 유지

■ 2월 아연시장 요약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부분의 원자재 시장이 충격을 받았으나, 아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음. 이는 우크라이나가 연간 금속아연 2만 톤 정도를 소비하며(2021년 기준 세계 아연 소비 36위 및 0.24% 점유), 연 50만 톤 규모의 아연도금 산업은 러시아 침공 전 이미 유희화되었기 때문임

4) 시장전망지표는 20년간 과거 실질가격 추세 및 투자환경적 요소(미달러가치, 원자재지수), 미래10년치 가격예측 결과를 종합화한 리스크 측정지표로 `19년3월부터 공사가 자체개발하여 매월 KOMIS(한국자원정보서비스, www.kores.net)에 공시함

-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現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유럽의 전력가격 상승 및 아연 제련소들의 재정문제는 이번 여름까지는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더욱이 러시아의 자국 석유 및 천연가스 무기화 시, 에너지 가격의 폭등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 제한 문제까지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탈탄소화 정책으로 높은 전력가격 결정 구조가 형성된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실해 보임에 따라, 유럽지역의 아연 제련소들에 재정 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아연정광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러시아는 대체로 금속아연을 자체 생산 및 소비하지만, 아연 정광을 연 15만 톤 수준으로 수출해 옴. 세계 각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 발표 및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결정으로 러시아 아연 광산들의 생산 감축 및 신규 생산계획 연기가 전망됨
 - Ozeroye 광산 : Siberia 지역 Baikal 호수 인근 소재. 2024년 생산개시 및 연산 아연정광 30만 톤 계획
- 정련아연 시장은 수급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음. LME 현물과 3개월물 간 가격 스프레드는 55거래일 연속 백워드이션이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임. LME 재고는 2월말 기준 144천 톤으로, 1월말보다 10천 톤 감소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타이트한 수급은 유럽(\$350~450/t) 및 북미(\$460~510/t) 지역의 현물 프리미엄의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광산들의 생산 가이드선 조정 및 최근의 실적 부진으로, WoodMackenzie사는 아연정광 생산 전망을 2021년 164천 톤 공급 초과 및 2022년 151천 톤 공급 초과로 하향 조정함. 팬데믹이 기존 광산들의 운영 및 신규 광산들의 생산계획에 이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 수 개월 높은 전력가격으로 고전하고 있는 유럽 제련소들의 실적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Auby 및 Portovesme 제련소와 추가 200천 톤급 제련소의 유희화로 금속아연 332천 톤 공급 부족 및 2022년말 기준 세계 소비량 34일분 수준으로 재고 감소가 전망됨
- 지정학적 리스크 및 그에 따른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아연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 주요 변수로 부상함

3. 업계 동향

■ 페루 Antamina 광산, 갱내채광 전환 추진

- 페루 Antamina 광산의 갱내채광 전환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착수됨. 사업타당성 확인 시 2031년 갱내광산 건설을 시작하여 2036년 갱내채광 전환 및 2039년 완전 조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기준 갱내광산의 예상 매장량은 광석량 410백만 톤(@Zn 0.4%, Cu 1.3%, Mo 0.01%, Ag 14g/t)임. Antamina 광산은 페루 최대 동광산으로 동, 아연, 몰리브덴, 연, 비스무스 등을 생산하며, 2021년 기준 아연 462천 톤을 생산함

■ 호주 McArthur River 광산 확장 프로젝트 승인 취소

- 호주 Northern Territory 주정부가, Glencore사가 신청한 McArthur River 광산 확장 프로젝트의 기존 승인을 취소하고 이전 판결인 원주민구역보호당국(Aboriginal Areas Protection Authority) 제청안을 옹호함
- 광산 확장 프로젝트는 2013년에 시작된 3단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행기간을 2048년까지 연장하고 생산규모를 연산 아연 280천 톤급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 프로젝트는 확장비용 총 \$360백만, 선광규모 최대 연 5.5백만 톤, 가행기간 11년 연장, 채광장 바닥 210ha 및 높이 420m로 확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추가 530백만 톤의 폐석을 적재하기 위해 폐석장이 필수적임

- 주정부 및 AAPA는 지하수의 배수량 변화 및 폐석더미의 경사면 안정성 문제 등을 제기함
- 2021년 McArthur River 광산은 광석량으로 아연 280천 톤을 생산

■ 페루 Austria Duvaz 광산 가행 중단

- 페루 Austria Duvaz 광산이 지난 1월 2일 파업 이후 2월 12일자로 가행이 무기한 중단됨.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인센티브 지급안을 거절
- Austria Duvaz 광산은 동, 연, 아연 정광 및 부산물로 은을 생산함. 당 광산은 2020년초 재정문제로 가행이 중단된 뒤,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6월까지 생산을 재개하지 못함
- 2021년 기준 Austria Duvaz 광산은 아연 5천 톤, 연 1천 톤, 동 4천 톤 및 은 30톤을 생산함

■ 호주 Develop사, Woodlawn 광산 매입

- 호주 광산기업 Develop Global사가 Heron Resources사로부터 서호주주 소재의 Woodlawn 동·아연 광산을 A\$30백만에 인수함. Develop사는 인수비용으로 현금 A\$15백만 및 Develop사 주식 A\$15백만을 지불하며, 향후 매장량을 추가 발굴하면 A\$70백만을 추가 투자할 계획임. 인수 작업은 2022년 4월 중 완료될 전망임
- Develop사는 신규 갱내채광장 건설을 목적으로 매장량 추가 확보를 위해 탐사를 진행할 계획임
- Woodlawn 광산은 2019년 2분기 생산을 개시하였으나, 2020년 3월 팬데믹 등 운영상의 복합적인 문제로 가행이 중단됨. 가행기간은 9.3~11.5년으로 추정되며, 연 생산규모는 아연 40천 톤, 동 10천 톤, 연 12천 톤, 은 900천 oz, 금 4천 oz임
- 한편, Develop사는 서호주주에 Sulphur Springs 및 Whim Creek 등 동·아연 프로젝트 2개를 더 보유함

■ 멕시코 Plomosas 광산 갱도 일부 침수

- 호주 Consolidated Zinc사가 운영하는 멕시코 Plomosas 광산이 양수기 문제 등으로 심부갱도가 침수됨. 이에 따라 현재 level 7 및 8에 접근이 제한되었으며 2월중 복구 계획임. 그 외 Tri Amigos 및 Carola South 채광장을 포함한 다른 갱도들은 가행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Plomosas 광산은 2018년 12월 상업생산을 개시하였으며 2021년 아연 2.5천 톤을 생산함. 2022년 중 생산규모를 확장하여 아연 5천 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함. toll treatment 계약을 통해 광석은 Aldama 선광장에서 처리하고, 아연 정광 100%는 Met-Mex 제련소에 공급됨

■ 호주 Sandfire사, 스페인 MATSA 인수 완료

- 호주 광산기업 Sandfire Resources사가 스페인 Aguas Tenidas 광산(MATSA)을 U\$18.7억에 인수하는 작업을 완료함. 스페인 당국은 MATSA가 Mubadala Investment사 및 Trafigura사로부터 Sandfire사에 양도되는 것을 최종 승인함
- MATSA는 생산규모 아연 110천 톤, 동 70천 톤, 연 9천 톤 및 가행기간 12년으로 평가되며, 연 4.7백만 톤급 선광장을 보유함
- Sandfire사는 선광장 처리규모를 연 5백만 톤급으로 확장할 계획임. 한편, Trafigura사는 정광의 offtake 권리를 계속 보유함

■ 민주콩고 Kipushi 합작법인 계약 체결

- 캐나다 광산기업 Ivanhoe Mines사는 민주콩고 국영 광산기업 Gecamines사와 신규 Kipushi JV 협약을

체결하여 Kipushi 광산의 생산을 추진함. 현재 Kipushi 광산은 Ivanhoe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며, 본 협약으로 주식자본 및 의결권이 Gecamine사에 단계적으로 이전되어 2027년에 지분구조가 Ivanhoe 57% 및 Gecamine 43%가 될 예정임

- Ivanhoe사는 Kipushi 광산의 F/S 결과를 업데이트하여 가행기간 14년 및 연산 아연 240천 톤 규모로 평가함. Kipushi 광산은 세계에서 아연 품위가 가장 높은 광산 중 하나로, 가행기간 평균 아연 품위가 32%에 달함
- WoodMackenzie는 Kipushi 광산이 2025년 생산 개시할 것으로 전망

■ 캐나다 Bunker Hill사, Teck사로부터 Pend Oreille 선광시설 매입

- 캐나다 Bunker Hill Mining사가 Teck Resources사로부터 Pend Oreille 선광시설을 U\$3.0백만에 매입하기 위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Pend Oreille 선광시설은 미국 Washington주 Spokane시 북쪽 95mile 거리에 위치하며, 연 처리규모 500천 톤급의 연·아연 선광시설(갱내/노천)로 2009년 이후 유휴화 상태임
- Bunker Hill사는 5월 전에 시설 복원작업을 시작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이와 함께 사전타당성조사(PFS)를 진행하여 2022년 2분기 중 완료 계획임

■ 캐나다 Valleyfield 제련소 확장계획 지연

- 세계적인 아연기업 Glencore사의 캐나다 자회사인 Noranda Income Fund가 캐나다 Valleyfield 제련소의 확장작업을 2분기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동사는 냉각 타워 2기 및 벨트 필터의 추가 설치 계획으로, 생산규모를 연 20천 톤 더 향상시키고자 함
- Valleyfield 제련소는 2022년 총 270천~280천 톤의 금속아연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됨
 - Valleyfield 제련소 : 생산규모 연 275천 톤급으로 북미지역 2위 규모 아연 제련소, 캐나다 Quebec주 소재, Glencore Canada사가 자회사 Noranda Income Fund trust를 통해 지분 25% 보유

■ 프랑스 Auby 제련소 가행 중단

- Nyrstar사의 프랑스 Auby 제련소가 1월 23일을 기점으로 전력가격 사정에 따라 3~5주 간 가행중단 계획을 발표함
- Auby 제련소는 당초 2월말을 기점으로 약 5주간 가행을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획을 앞당겼으며 가행중단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임

V. 니켈

1. 가격 동향 (LME기준)

■ '22. 2월 평균가격 : 24,178 달러/톤(전월대비 8.3% 상승)

* LME 재고량 : '22. 1월말 9만600톤 → '22. 2월말 8만94톤

- 니켈시장은 전기차 시장강세로 배터리 원료인 리튬과 함께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스위프트 퇴출 등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강화로 금융결제 및 해운/항공 운항차질에 따른 니켈 공급망 차질 우려가 심화되면서 가격급등세가 나타남
 - World Metal Statistics에 따르면 러시아의 니켈생산은 `21년기준 광산 3위(7.0%), 정제련 4위(4.3%)임
 - 3월2주차 LME의 니켈재고량은 75,312톤으로 전주대비 4.1% 감소, 46주연속 감소세임
- 3월7일자 니켈가격은 톤당 4만2,995달러로 전장대비 44.3%의 급등세가 시현되었고, 일일기준으로 사상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함. 장중 니켈가격은 사상최대인 5만5천달러까지 급등하였고 증가는 5만달러로 마감함. 이후 LME는 일주일간 니켈 선물거래를 중단함
- 다만, 미연준의 3월 금리인상 조기추진으로 미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기피심리 확산에 따라 상기 가격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

(단위 : \$/톤)



2. 시장 동향

■ LME, 니켈가격 폭등으로 거래 중단

- 런던금속거래소(LME)는 벤치마크 가격이 톤당 10만 달러 이상으로 폭등하자 3월 8일 니켈 거래를 전면 중단함.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니켈 공급국인 러시아의 공급 차질 우려로 니켈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중국의 철강 및 니켈 생산업체인 Tsingshan社가 대규모 공매도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니켈을 대량 매수하며 전례 없는 가격폭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짐
- LME는 이례적인 가격폭등 이후 니켈 계약과 관련하여 전일 증가를 기준으로 5%의 일일 가격 변동폭 한도를 설정하고 3월 16일 니켈 거래를 재개할 계획임. 또한 다른 모든 비철금속에 대해서도 15%의 일일 변동폭 한도를 설정한다고 언급함. 모든 니켈 계약 인도와 관련하여 3월 16~22일 중에 인도할 것으로 미리 명시된 것이라도 3월 23일로 연기됨. LME는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낮은 재고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함. 3월 14일 기준 LME 니켈 재고량은 75,318 톤으로 1년 전과 비교하여 71% 감소한 수치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니켈공급 위기 심화

-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요 니켈 생산국인 러시아의 니켈공급 위기가 심화되었음. 러시아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강도 높은 제재로 해외 니켈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니켈 가격이 급등함. 러시아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이용 금지, 대형 선사들의 러시아 운송중단 등으로 니켈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 S&P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4대 정련니켈 생산국이며 러시아의 Norilsk Nickel사는 '21년에 정련니켈 193,006톤을 생산한 세계 최대의 정련니켈 생산업체임. INSG(International Nickel Study Group)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11월 동안 총 100,966톤의 정련니켈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의 비중은 중국 37%, 네덜란드 37%, 독일 16%, 미국 5%를 차지함

■ 스위스 UBS 銀, 2분기 니켈가격 34,000달러/톤 전망

- 스위스 은행 UBS에 따르면 LME 니켈 벤치마크 가격은 2분기까지 톤당 34,0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정련니켈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의 공급 차질 우려에 더하여 LME 및 상하이선물거래소(ShFE) 전반의 구조적으로 낮은 재고량은 가격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 언급함. 우크라이나 사태 종결 및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로 니켈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려는 원자재 수요의 증가 및 즉각적인 공급량 부족으로 하락추세는 쉽게 상쇄될 수 있다고 분석함. UBS는 니켈가격이 3분기 말까지 32,000달러/톤, 4분기 말까지 30,000달러/톤, 내년 1분기 말까지 28,000달러/톤이 될 것으로 예측함

■ 필리핀, '21년 니켈 원광 생산량 증가

- 필리핀의 '21년 니켈 원광 생산량이 중국 스테인리스강 산업 확장에 따른 높은 수요에 따라 증가함. 필리핀 광산지질과학국(MGB)에 따르면 지난해 니켈 원광 생산량은 3,288만톤(dmt)으로 전년의 2,678만톤 대비 23% 증가하였고 이는 금속 386,359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의 328,911톤 대비 17% 증가한 수치임. 수출량은 4,340만톤(wmt)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그 중 3,770만톤이 중국으로 수출되었음. 필리핀은 세계 2위의 니켈 원광 생산국가이며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함

■ 중국, 2월 신에너지차(NEV) 판매 호조

- 중국 정부의 저탄소사회 전환 가속화 정책에 따라 2월 신에너지차(NEV) 생산 및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중국 자동차제조협회(CAAM)에 따르면 2월 NEV 생산량은 368,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97.5% 증가하였으며 판매량은 334,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84.3% 증가하였음. 이는 1월 대비 약간 낮은 수치이나 음력 설 연휴의 영향으로 분석됨. 1~2월 NEV 누적 판매량은 765,000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7.9%를 차지함. 중국의 올해 NEV 판매량은 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업계 동향

■ 브라질 Vale 社, Totten 광산 조업 재개

- 브라질 광산기업 Vale 社의 캐나다 Sudbury에 위치한 Totten 광산이 6개월간의 폐쇄 이후 조업을 재개함. 지난해 9월 갱내 사고로 근로자 39명이 매몰되었다가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갱내시설 수리로 조업이

중단됨. Vale社 올해 생산 목표치 175,000~190,000톤 달성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 주요 정련니켈 생산기업, 전분기 대비 생산량 증가

- S&P社에 따르면 상위 5개 정련니켈 생산기업의 '21년 4분기 생산량은 160,836톤으로 3분기의 120,994톤 대비 32.9%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 생산량인 167,947톤에 대비하여 4.2% 감소하였음. 이전 분기대비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브라질 광산기업 Vale社가 운영하는 광산에서의 장기 파업 발생 및 광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조업 중단 이후의 조업 재개에 기인함
 - '21년 4분기 상위 5개사 정련니켈 생산량은 각각 Norilsk Nickel社 62,736톤, Glencore社 31,200톤, Vale社 28,385톤, BHP社 21,500톤, PT Vale Indonesia社 17,015톤으로 총 160,836톤에 달함

■ 중국 CNGR社, 황산니켈 생산 개시

- 중국 배터리 원료 생산기업 CNGR Advanced Material社는 중국 남부 Qinzhou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연산 60,000톤 규모의 황산니켈 생산을 개시함. CNGR社는 세계 최대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구체 제조업체 중 하나로 지난해 말 기준 연산 200,000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함. 올해 말까지 삼원계 전구체 생산능력을 연산 300,000톤 이상, 내년까지 500,000톤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니켈 매트는 배터리 그레이드의 황산니켈 생산을 위한 주요 원료로 CNGR社는 지난해 3월 중국 Tsingshan社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니켈 매트 40,000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Jaguar 니켈 프로젝트, 브라질 "전략 광물" 지위 획득

- 호주 광산기업 Centaurus Metals社는 브라질 Jaguar 황화니켈 프로젝트에 대하여 브라질 정부로부터 "전략 광물 프로젝트(Strategic Minerals Project)" 지위를 부여받았음. "전략 광물" 정책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브라질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임. Jaguar 프로젝트는 니켈 금속 730,000톤에 해당하는 0.91% 품위의 니켈 8,060만톤의 자원량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2년 내 100만톤 이상으로 확장 가능한 세계 최대의 미개발 황화니켈 프로젝트로 여겨짐. 개발비는 2억8,800만 달러로 추산되며 '24년 말 첫 생산이 예상됨

■ 중국, 2월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 증가

- 중국의 2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신규 설치가량이 신에너지차(NEV) 분야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증가함. 중국 자동차제조협회(CAAM)에 따르면 2월 배터리 생산량은 31.8GWh로 전년동기대비 236.2% 증가하였으며 설차량은 13.7GWh로 145.1% 증가함. 1~2월 누적 생산량은 61.4GWh, 설차량은 29.9GWh이며 그 중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량은 38.8GWh로 전체의 63.2%, 설차량은 16.7GWh로 전체의 55.9% 비중을 차지함.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비용과 중국 정부의 NEV 보조금 삭감 및 니켈·코발트 가격상승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같은 기간 설차량 기준 상위 3개사는 CATL社(49.2%), BYD社(21.1%), China Aviation LB社(7.9%)임

■ 호주 Mincor社, Kambalda 광산 재개

- 호주 광산기업 Mincor Resources社는 니켈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6년 이상 조업을 중단했던 서호주에 위치한 Kambalda 니켈 광산의 운영을 재개함. BHP社의 Nickel West 프로젝트와 고품위 니켈 생산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첫 생산은 4~6월 중으로 예상됨. Kambalda 지역은 역사적으로 160만톤 이상의 니켈을 생산한 호주 최대 니켈 부존지역으로 최근 다시 각광을 받음

VI. 철광석

1. 가격 동향 (62% 분광 중국 수입가 기준)

■ '22. 2월 평균가격 : 142.76 달러/톤 (전월대비 8.7% 상승)

- 2월중순 중국정부의 철광석 가격안정화를 위한 시장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중국의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조강생산 확대 기대 및 제조업 PMI 경기지수 개선으로 철광석 수요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공급측면에서 러시아발 원자재 공급망 차질 및 브라질의 폭우로 메이저 Vale사의 Carajas 철광산내 철도운항 중단 등 공급차질 이슈로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함
- 다만, 미국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 금리인상 단행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기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상기 가격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됨

(단위 : \$/톤)



2. 시장 동향

■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급 우려와 철광석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상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원자재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 등으로 철광석 가격이 상승함. 이번 사태로 인해 원자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중국 정부가 계획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또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출하는 철광석의 양은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점유율을 차지(4%) 하고 중국보다는 유럽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공급되던 철광석의 운송 차질이 다른 지역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관측됨
- 베이징 패럴림픽과 난방 시즌 종료 후 본격적으로 철강 생산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광석 수요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다만 최근 중국 규제 당국의 철광석 시장 안정화 조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철광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호주, 잠재적인 기상장애로 철광석 공급 차질 우려

- '22년 호주 수출 증가를 예상하지만 5백만톤 이하의 순증가 정도이며 현재 사이클론 시즌이 진행 중으로 단기 공급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음

- 호주 기상국(BoM)은 라니냐 현상이 정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습한 날씨를 통해 북부 및 동부 오스트레일리아에 미치는 영향이 5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 브라질, 폭우와 계속되는 우기로 수출 실적 부진

- 1월 Minas Gerais주에서 폭우로 인해 가동을 중단했던 철광석 광산들이 1월 말까지 모두 백업 및 가동되었지만 공급망 중단은 2월까지 지속됨. 2월달 수출은 전월대비 3~4백만톤 추가 하락해 선적량이 5년 내 최하위를 기록함

■ 인도, 수출 모멘텀 확보

- '22년 인도는 수출가격의 급등, 철강 생산능력의 확대 및 유럽 바이어의 잠재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 모멘텀을 확보하고 현재의 급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21년 인도 철광석 수출량은 36백만톤으로 생산량의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0% 감소했었음. 이는 국내 시장의 펠릿 가격이 중국 수출가보다 높고, 분광 해외가격 급락 및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업계 동향

■ 중국 철강연합(CISA), 2025년 해외 철광석 생산량 확대 계획

- 중국 철강연합은 중장기 철광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철광석 생산용량을 '20년 120백만톤에서 '25년 220백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임. 철광석 탐사를 통해 중국산 철광석 100백만톤을 증산하여 자원량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임
- 중국은 세계 1위 철광 생산국으로 연간 1,000백만톤 이상의 철광석을 소비하며 그 중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T), 철광석 증산 및 스크랩 재활용 계획 발표

-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2.7일 고품질의 친환경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철광석 증산 및 철 스크랩 재활용 정책을 발표함. '25년까지 전체 철강 생산 용량의 80% 이상을 탄소 초저감장치로 교체하고, 전기로(EAF) 방식을 이용한 조강 생산량을 '20년 10%에서 '25년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 당국은 철강 생산 통제책을 지속할 계획이며, 철강업계의 통합 및 재편을 촉진하겠다고 밝힘

■ 인도 Jindal Steel & Power사(JSPL), 철강재 수출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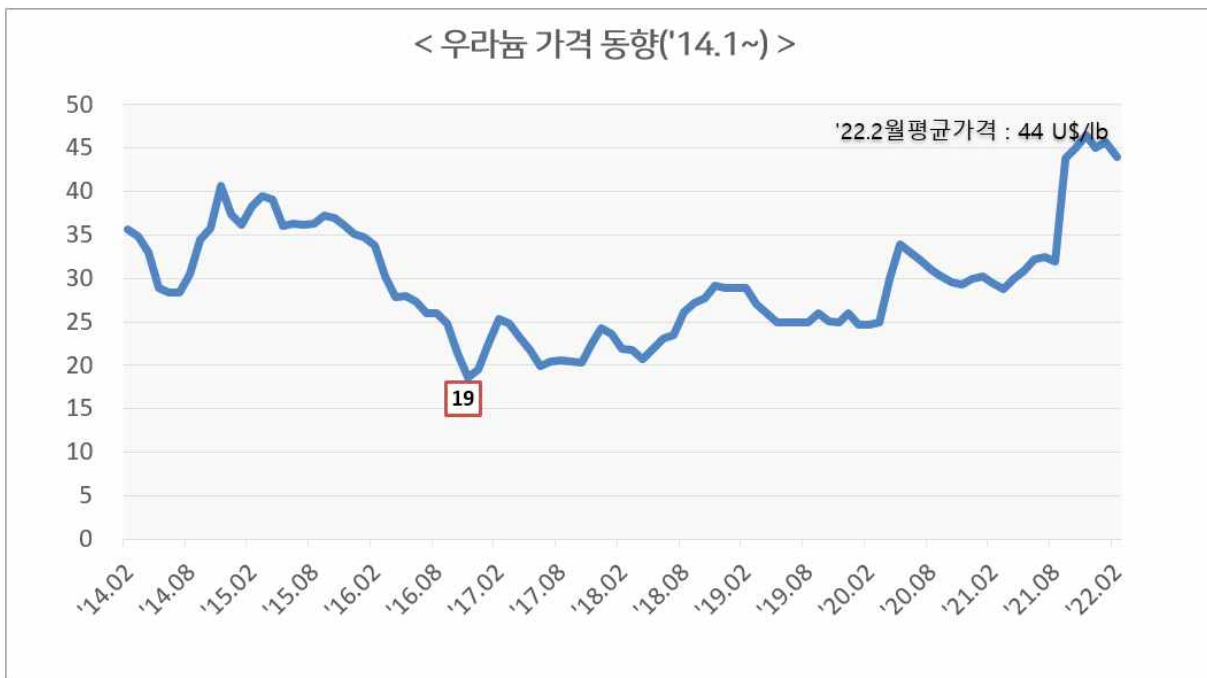
- '21년 조강 생산량 기준 인도 내 5위 기업인 Jindal Steel & Power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철강재 공급 감소로 인해 자사의 철강재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 동사는 철강재 생산량 중 25%를 수출하지만 '22년 35~40%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함

부록 1. 광종별 가격동향

유연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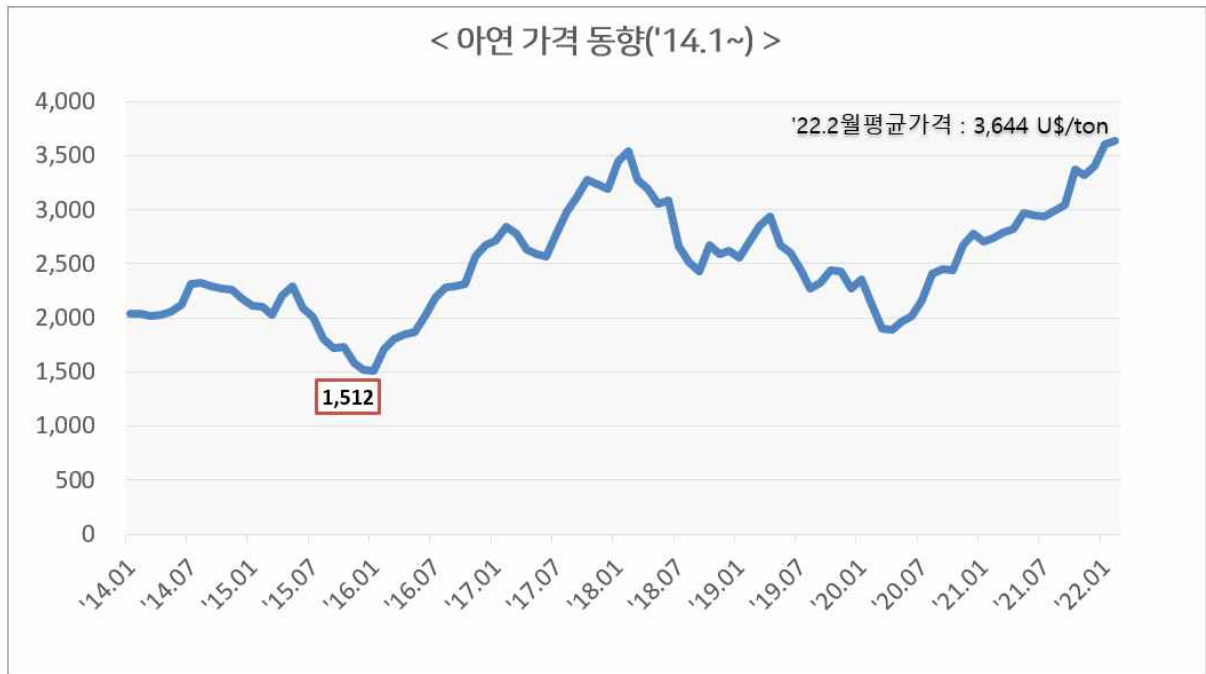
우라늄



I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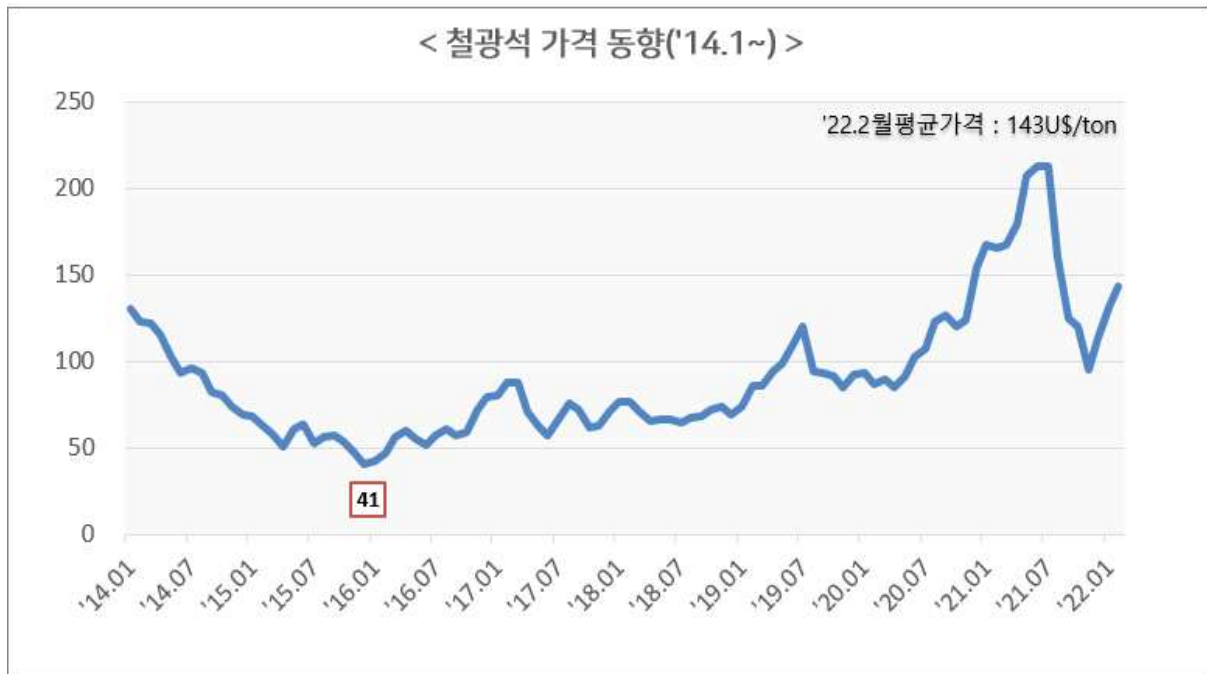
I 아연



니켈



철광석



부록 2. 기관별 광물가격 전망

I KOMIS

광종	단위	2022				평균가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료탄	U\$/ton	150.65	131.41	119.26	111.20	128.13
우라늄	U\$/lb	45.43	44.96	44.45	43.90	44.69
철광석	U\$/ton (중국 수입가 분광 62%)	101.43	95.96	91.94	88.61	94.49
동	U\$/ton	9,091	8,904	8,774	8,676	8,861
아 연	U\$/ton	3,444	3,397	3,333	3,259	3,358
니 켈	U\$/ton	18,044	18,085	18,549	18,721	18,350

I 해외 주요기관

광종	단위	전망기관	기준일	전망가격
연료탄	U\$/ton	Bloomberg	2022.03.11	161.9
		Capital Economics	2022.03.02	205.7
우라늄	U\$/lb	Trade Tech	2022.02.28	47.0
철광석	U\$/ton (중국 수입가 분광 62%)	Bloomberg	2022.03.11	109.8
		Intesa Sanpaolo	2022.03.09	135.0
		Capital Economics	2022.03.02	117.0
동	U\$/ton	Bloomberg	2022.03.11	9,521.9
		Intesa Sanpaolo	2022.03.09	10,200.0
		Commerzbank	2022.03.08	10,200.0
아 연	U\$/ton	Bloomberg	2022.03.11	3,333.8
		Intesa Sanpaolo	2022.03.09	4,100.0
		Commerzbank	2022.03.08	3,975.0
		Capital Economics	2022.03.02	3,440.0
니 켈	U\$/ton	Bloomberg	2022.03.11	22,066.3
		Intesa Sanpaolo	2022.03.09	27,500.0
		Commerzbank	2022.03.08	34,500.0